『中國學』第85輯 (2023.12.31.) DOI http://dx.doi.org/10.14378/KACS.2023.85.85.18
pp.405-424. ISSN : 1229-9618

중국 동남 연해지역의 관우문화 고찰*
- 福建 東山을 중심으로

이민경**

【목 차】

1. 들어가며
2. 동산의 관우문화 수용
1) 유입기
2) 정착기
3) 진화기
3. 동산 관우문화의 특징
1) 武神
2) 海神
3) 祖神
4. 나가며

【초록】
복건성 장주시 동산에 위치한 銅陵關帝廟는 중국 4대 관제묘 중 하나로 꼽힌다. 동산은 중원으로부터 한참 떨어진 곳이며, 관우 생전 그 어떤 접점도 없었다. 하지만 이곳은 중원문화, 민남문화, 해양문화가 서로 융합하여 다채롭고 독특한 새로운 관우문화를 자랑한다. 본고는 福建省 漳州 東山에 관우문화가 유입되고 정착되는 과정 및 그 특징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관우문화의 다양성을 도출하고 중국 동남 연해지역의 문화를 이해하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관우문화, 東山, 閩南, 관공숭배, 동남 연해 문화, 동산관제묘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6A3A01079869)
** 이민경,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HK연구교수 (chinamin@hanmail.net)

1. 들어가며

세간에서 “萬人之敵”의 평가를 받으며 난세를 누볐던 관우는 생전에 漢壽亭侯에 봉해졌고 사후에는 壯繆侯라는 시호를 하사받았다. 萬夫不當의 장수로 위명을 떨쳤으나, 최후에는 여몽을 위시한 동오군에 참패하여 목이 잘리는 수모를 겪으며 생을 마감하였다. 살아생전 그가 받은 작위는 제후에 그쳤고 패장이라는 불명예를 짊어진 채 유명을 달리하였지만, 사후 神의 반열에 올라 지극한 숭배를 받게 된다.

관우를 위한 제사는 그가 죽음을 맞은 荊州 當陽의 민간에서 처음 시작되었는데, 비참하게 최후를 맞은 패장의 한을 풀어주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즉 초기의 享祀는 祈福이 아니라 免禍를 기원하는 陰祀였다.

그런데 송대 이후부터 황제에게 시호와 작위를 받는 등, 관우의 지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 송대 ‘王’의 봉호를 받았던 것을 시작으로 명대에 ‘帝’에 오르게 되고, 청대에도 시호가 계속 추가되어 순치제 때에는 무려 26자나 되는 시호를 가지게 된다. 비슷한 시기 민간에서는 백여 자에 달하는 시호로 관우를 칭하기도 하였다니, 관우에 대한 숭배는 관민 공통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역대 통치자들은 관우의 ‘忠義’와 ‘武勇’에 주목하였기에 武神이나 護國神의 신격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민간에서 관우는 무신일 뿐만 아니라 재운, 관운, 무병장수, 과거급제, 심지어는 아들 출산 등 무엇이든 관장할 수 있는 만능신으로 받아들여졌다.

남북조 이후 사회 동란으로 인하여 중원 한족들의 남하가 잦아졌고 福建에도 한족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인구의 이동과 함께 관우 숭배문화도 남하하여 전 중국으로 전파되었다. 전국 각지에 관왕묘가 세워졌고 동남부 연안 곳곳에도 크고 작은 관왕묘가 들어섰다.

동남 연안의 초기 관우 숭배문화는 중원과 비교하여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제례의 형태나 절차, 관우의 신격 등이 중원과 대동소이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의 관우문화는 중원과 분명한 차이가 생기게 된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지리적 위치를 들 수 있겠다. 이곳은 산지가 많고 동쪽 연안 부근의 평원은 그리 넓지 못하여 농업 생산이 불리한 곳이다. 따라서 거주민들은 자의 반 타의 반 바다에 기대어 생계를 모색해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양문화가 조성되었다. 그리고 이곳 복건의 문화는 이민족의 문화와 융합되어 중원의 문화와는 확연히 구분되었다.

동남부 연안은 중원문화, 해양문화, 민남문화를 서로 융합하여 다채롭고 독특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었다. 관우문화 역시 마찬가지이다. 중원으로부터 전래되었으되 민남문화와 해양문화가 결합되어 내륙의 그것과는 차이를 드러내었다.

본고는 福建省 漳州 東山을 중심으로, 관우문화가 유입되고 정착되는 과정 및 그 특징 등을 살펴보고, 동산 관우문화의 함의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는 관우문화의 다양성을 도출하고 중국 동남 연해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동산의 관우문화 수용

관우는 山西 解州에서 태어났고 살아생전에 동산은커녕 민남 지역과 그 어떤 인연도 맺은 바 없으며 심지어 바다와 관련한 일화조차 전해지는 것이 없다. 그런데 동남 연해의 복건성 동산에는 여타 지역 못지않은 관우 숭배의 문화가 존재한다. 크기의 차이가 있을 뿐 집집마다 관우상을 모신 제단이 있고, 이곳의 주민들은 새해 혹은 관우의 탄신일이나 승천일에는 관제묘로 가서 제를 올리며 가정의 평안과 보우를 기원한다. 이뿐만 아니라 동산에는 山西 解州關帝廟·湖北 當陽關陵·河南 洛陽關林과 더불어 '중국 4대 관제묘'로 꼽히는 '東山銅陵關帝廟'[1]가 있고, 매년 관우를 주제로 한 상당 규모의 문화관광 축제[海峽兩岸(福建東山)關帝文化旅遊節]가 열리기도 한다.

예로부터 동산 주민들에게 있어서 관우는 중요한 숭배 대상 중 하나였고 이곳의 관우문화는 상당한 역사를 자랑한다. 동산이 관우 생전 그 어떠한 접점도 없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관우 신앙이 착근될 수 있었던 연유는 무엇일까? 또 동산의 관우 숭배문화는 어떻게 오늘날까지 면면히 이어져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일까? 우선 동남 연해 지역에 관우 신앙이 유입된 시기와 과정 및 그 숭배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궁금증의 실마리를 찾아가 보고자 한다.

1) 유입기

당나라 초 陳政, 陳元光 부자가 반란 진압을 위해 군대를 이끌고 민남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민남 개발이 시작되었는데, 垂拱 2년(686) 漳州가 신설되었고 이후 동산에도 군대가 주둔하게 되었다. 따라서 동산의 초기 주민 중 상당수는 군인이거나 군인의 가족들이었고, 그들은 타지—내지 혹은 북방으로부터 이주한 사람들이었다.

이들 군 이주자들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적을 견제하며 낯선 이웃과 물선 땅에서 적응해 나가야 했으니, 항시 생존과 안녕을 위협당하는 처지에 놓여있었다. 그

1) 동산관제묘는 현재 福建省 漳州市 東山縣 銅陵鎮 북동쪽의 風動石景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6년 중국 全國重點文物保護單位에 포함되었다.

들은 불안에 잠식당하지 않기 위하여 정신적 지주가 필요했는데, 고향에서부터 모셔 온 관우 신상에 향을 올리는 것으로 심리적 안정을 구하였다. 즉 이주민을 통하여 중원의 관우 신앙이 장주로 유입된 것이다.

다양한 민간신앙 가운데서 특히 관우 신앙이 동산에 정착될 수 있었던 것에는 관우가 생전에 무장이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충의의 표상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군대는 엄격한 상명하복의 질서가 수립되어야만 조직으로, 그 무엇보다 '忠'의 덕목이 가장 요구된다. 상관의 입장에서 보자면, 휘하의 사병들이 주군에 대한 충심을 끝낸 잃지 않았던 관우를 경배하고 마음을 의탁하는 것은 환영을 넘어서 장려할 만한 일이다. 뛰어난 무용과 굳건한 충절을 지녔던 관우만큼 군인의 귀감으로 삼기에 적합한 인물이 어디 있겠는가? 이러한 이유로 사병들의 관우 숭배가 용인될 수 있었다.

고대 중국의 향촌은 혈연을 기본 단위로 하는 집단들의 결합으로 구성되었다. 혈족을 중심으로 집단거주를 하는 공동체 내에서는 '혈연관계'가 개인을 보증하고 이웃을 신뢰하도록 작용한다. 하지만 외지에서는 혈연이라고 하는 신뢰의 구심체가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주사회에는 그것을 대체할 새로운 구심점이 요구된다. 그런데 '義'는 '利'와 대립항으로서[2], '의'는 이기주의적 영리 추구의 지양 및 공동체의 구성원 간의 상호 결속 도모에 유리한 관념이다. '의'의 선양은 타지로부터 유입된 이주민들 사이를 남남이 아닌 이웃으로 묶어내며 그들의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강화할 수 있다.

忠은 군영의 기율 정립에, 義는 이주 공동체의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는 도덕관념이다. 동산은 병영사회로 건설되었고 당시 구성원의 대부분은 타지로부터 이주해 온 사람들이므로 이민사회이기도 하였다. 동산이 단순한 군사기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엿한 향촌 사회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忠義의 덕목이 절실히 요구되었는데, 관우 숭배는 구성원들이 충의정신을 내재화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중원에서 유입된 관우 숭배문화는 동산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었다.

2) 정착기

원말 遼東과 山東 등 동북 연해에서 발호했던 왜구가 명대에는 동남 연안까지 그 활동 반경을 넓혔다. 명은 건국 초부터 왜구의 준동과 왜구와 국내 반체제 인사나 연해민 혹은 해적이 서로 결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상 방어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

2) 『論語·里仁』에서 "君子喩於義, 小人喩於利."라고 하였는데, 先秦 유가에서 義와 利는 대립되는 개념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였는데, 동·남해의 전략 요충지에 차례로 水寨와 衛所를 신설, 증설하였고 병력을 배치하여 연안을 방어하였다.

<그림1> 명대 복건지역의 衛所[3]

민남 연안의 중요거점에도 여러 군사시설이 추가되었다. 동산은 浙江에서 복건으로 이어지는 수로 남쪽에 위치하여, 당시 복건과 廣東의 방호를 위한 군사요충지의 하나였다. 洪武 20년(1387) 江夏侯 周德興은 홍무제의 명을 받들어 銅山水寨와 千戶所를 설치하고 銅山城을 축조하였는데[4], 당시의 관례에 따라 武廟가 함께 건립되었다. 鼎建銅城關王廟記를 통하여, 왜구로부터의 방어라는 동산성 축성의 이유와 병사들의 보호와 심적 의지를 위해 관왕묘를 설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城銅山, 以防倭寇, 刻像祀之, 以護官兵, 官兵賴之. (鼎建銅城關王廟記)[5]

---

3) ◎는 명대 설치된 위소의 위치를 표시하고 있다. 지도 최하단의 별표가 표시된 박스 안이 동산의 위치이다. 동산성은 섬의 북동쪽에 세워졌다. (지도출처: https://zhuanlan.zhihu.com/p/48049967 [2023.11.06.])

4) 銅山은 東山의 옛 이름.

5) 東山關帝廟理事會, 『東山關帝廟志』, 東山風動石管理處, 2007, p.20.

동산 관왕묘는 건립 초기부터 신도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고, 사회적 불안이 커질수록 참배객의 수는 더욱 급증하였다. 당시 중원에서 관우가 병사들을 보호하고 적군을 몰아냈다는 류의 이야기가 대거 만들어지고 유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복건에서도 관우 顯聖의 설화가 널리 퍼지기 시작하였는데[6], 이 역시 더 많은 이들의 발걸음을 관왕묘로 잡아끄는 동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동산의 인구는 점차 증가하였고, 관왕묘를 찾는 사람들의 숫자도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명 중기 이후 동산의 관왕묘는 참배객을 충분히 수용하기가 어려울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 官使往來之絡繹, 與夫祈者、賽者、問吉凶者, 須臾聚可數十人, 而不能以容, 人咸病其隘. (鼎建銅城關王廟記)[7]

기도를 하려는 이, 제를 올리려고 하는 이, 길흉화복을 점치려는 이 등, 갖가지 목적을 가진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몰려와 금세 경내를 가득 메웠다. 하지만 관왕묘의 공간이 협소하여, 방문객들은 여러모로 불편함을 느꼈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에 왜구의 난을 피하여 동산으로 와 있던 雲霄사람 吳瀚를 중심으로 동산 주민 黃孫, 方魁, 游旭 등 9인이 관왕묘 중건에 뜻을 모았다. 하지만 그들의 출연금만으로는 공사 전체를 감당하기가 부족하여, 관왕묘 확장을 위한 대규모 모금 운동이 진행되었다.

正德 3년(1508)부터 시작된 개축 사업은 4년여 만에 마무리가 되었고, 완성된 관왕묘는 공간의 확장뿐만 아니라 웅장함에 화려함까지 더하여 전과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였다고 하니[8], 증축 사업의 규모가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대규모 민간 모금사업이 성공했다는 것은 관우 신앙이 동산에 튼튼하게 뿌리내렸음을 방증한다. 최초 "관병을 보호하기 위한(以護官兵)" 목적을 내세우며 건설된 관왕묘이고, 건립 초기 이곳을 찾는 이들의 대다수는 戰時에 관우의 보호를 기대하는 軍戶[9]였다. 그런데 150여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관우 신앙은 군호뿐만 아니라 民戶

---

6) 『嘉靖延平府志』에는 '義勇武安王行祠'의 건립 시기, 소재지와 관우신을 모시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정통14년 사현과 유계에서 역도들이 군성을 공격하였는데, 멀리서 성 안의 붉은 얼굴을 한 신병을 보고 죽음이 두려워 곧 퇴각하였다. 관병이 그 뒤를 쫓아서 역도들을 진압하였다. (正統十四年沙、尤寇叛, 攻郡城, 遙望城中皆赤面神兵, 心懾喪, 遂退. 王師從而撲滅之.)"라고 하여 민남에서 武神, 戰神 관우가 관병을 보호하고 적군을 몰아낸 전설을 남겨두었다. (蔡東洲·文延海, 『關羽崇拜研究』, 巴蜀書社, 2001, p.243.)

7) 東山關帝廟理事會, 『東山關帝廟志』, 東山風動石管理處, 2007, p.20.

8) 鼎建銅城關王廟記에는 정덕연간에 증축된 관왕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縱袤百二十尺, 橫廣五十一尺; 廟之規模, 王宮巍巍; 廊腰縵回, 階級竣絕, 中肅閫門, 外高華表, 旁則僧舍翼然, 非昔日之舊也. "

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게 된 것이다. 관왕묘에서 군사적 안전을 기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길흉화복을 묻고 다양한 소원을 빌고 제를 지냈던 것으로 보건대, 동산의 주민들에게 있어 관우는 무신은 물론이고 五福과 凶厄까지 관장할 수 있는 '만능신'으로 받아들여진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원에서 유입된 관우 신앙은 이미 안정적으로 정착한 것을 넘어, 동산의 토착 문화로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진화기

(1) 왜구의 준동

명대 중·후반 왜구 침입은 계속되고 해적의 소란은 점점 심해졌으나, 정치는 부패하고 군사력은 약화되어 동남 연안의 해상 방어체계는 거의 무력화되었다. 嘉靖 35년부터 41년까지 漳州는 매년 왜구의 침입을 겪었고("漳自此歲歲苦倭"), 백성들은 끔찍한 고통에 시달렸다("焚九都, 室庐殆盡", "焚劫殺掠不計", "死者相屬於道"). 하지만 왜구의 창궐 앞에서 관군은 속수무책이었고, 백성들은 공권력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었다.[10]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들은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土堡를 건설하고 자체 군사 조직을 만드는 등 자력구제를 도모하였다.

> "漳州府와 泉州府에서는 舊時에는 土堡가 아직 적었지만, 가정 40년 이래 寇賊이 발생하자 민간에서는 나날이 많은 土圍, 土壘, 寨를 축조하였는데 특히 연해지방에 많았다." (顧炎武, 『天下郡國利病書』券26)
>
> "가정 39년 倭寇가 침범하자 旬月之間에 寨 103座를 쌓고 社160을 연합하여 상호 협력하였던 사례처럼 향병이 존재하였지만 보채를 새로 만들어 보완하였으며, 그 위에 주변의 여러 촌락을 연합하여 대항하기도 하였다." (嘉慶『同安縣志』)[11]

공동활동과 단체생활이 성공하려면 구성원 간의 화합과 단결이 필수적이다. 따라

---

9) 軍戶는 軍役에 충당되는 戶計를 지칭하는데, 자손에게 세습되며 특별한 조건이 수반되지 않는 한 軍籍에서 이탈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그들은 전투와 수비뿐만 아니라 屯田 경작 등의 임무를 부여받았다. 명대에는 군호가 衛所에 파견될 때 처자와 동반하도록 하였는데, 正軍의 심리적 안정감 확보, 지속적인 군사 자원의 공급과 노동력 보장 및 가족을 담보로 하여 정군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조치였다. (윤정분, 「明代 軍戶制와 衛所制에 대하여」, 『東方學志』, 43,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4, pp.306-326.)

10) 원문은 『福建通志』(券九), 『漳州府志』(卷47)의 기록. 鄭鏞, 「關帝崇拜與漳州民風」, 『漳州師院學報』, 第3期, 漳州師範學院, 1998. p.27 재인용.

11) 원정식, 「전근대 중국 종족사회의 변화와 전란: 16-17세기 복건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사연구』, 제27집, 중국사학회, 2003, p.194, p.195에서 재인용.

서 내부 응집력과 유대감을 키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혈연 중심 조직의 경우에는 공동의 조상을 내세웠지만, 비혈연 집단의 결합에는 공유 신앙이 활용되었다. 당시 관우 신앙은 이미 동산 軍戶와 民戶 공통의 숭배 대상으로 자리매김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우의 정신은 구성원 간의 질서 확립과 신뢰 구축에 유용한 바가 있기 공동체 의식 발양과 유대감 증진을 위한 매개가 될 수 있었다.

(2) 대만 이주

동산과 대만은 해협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하는 위치에 있기에, 두 지역은 예로부터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그림2>의 지도에서 보듯이, 동산과 대만섬의 최서단을 직선거리로 측정하면 260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데, 澎湖와 약 180킬로미터, 高雄과는 307킬로미터 정도의 거리가 있다.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하여, 동산민의 대만 이주가 시작된 시기는 다른 지역보다 일렀고 그 숫자 역시 많은 편이었다.

<그림2> 동산과 대만[12]

鄭成功은 동산에서 군비를 조달하고 함선을 건조하며 병사들의 훈련을 진행하는 등 이곳을 反淸復明 항쟁을 위한 군사기지로 활용하였고, 대만 통일을 목표로 출정했던 施琅의 수군은 동산을 출병의 기점으로 삼았다. 정성공이나 시랑의 군대 모두 동산을 주요 거점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 부대에는 동산 출신의 사병들이 큰 비중

12) 좌측 하단의 동그라미 안이 동산의 위치이다.

을 차지하였다. 이 외에도 동산에는 어업이나 상업 등의 목적으로 대만을 오가는 이들도 상당하였다. 즉, 군역 이행, 자발적 參軍 등의 군사적 이유 혹은 생업 등의 목적으로 수많은 동산 주민들이 대만으로 향했으니, 그곳에 정착하게 된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行船走馬三分命"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배를 타고 바다를 오가는 것은 남은 목숨을 운명에 맡겨야 할 만큼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항해에 나서는 사람들은 관제묘로 향하는 일을 잊지 않았다. 그들은 신단 앞에 분향하고 절을 올리면서 항해의 무사안녕과 전투 승리, 안전한 귀환을 축원하는 의례를 행하였고, 관제묘에서 가져온 香을 넣은 주머니를 품에 간직하거나 關帝神像을 배 안에 모시고 바다를 건넜다. 대만에 건너간 뒤에는 안전하게 도항하도록 보살펴 준 은혜에 감사하는 제를 올리기도 하였다. 이후 대만에 정착한 뒤에도 동산에서와 마찬가지로 관우를 향한 숭배 행위를 계속 이어 나갔는데, 이들은 집 안에 제단을 만들거나 관제묘를 직접 건립하기도 하였다.[13]

해협을 오가는 어민, 상인, 군인 등을 통하여 동산의 관우 숭배문화가 대만으로 전파, 이식되었다.[14] 과거 중원으로부터 관우문화를 받아들였던 동산이 嘉靖 이후에는 관우문화의 受容地를 넘어 傳播地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동산에서 대만 등지로 전파한 관우문화에는 동산의 지리와 사회환경—섬, 동남 연해, 어촌, 海防기지, 밀무역 활성 등의 영향을 받아 현지화된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다. 명대 중후기 이후 동산의 관우문화는 중원과 구분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3) 遷界와 復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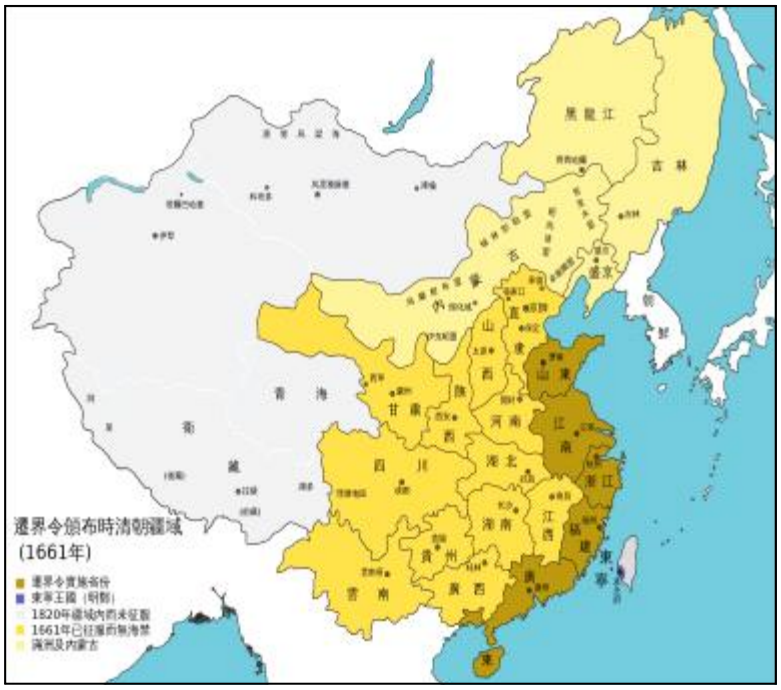
順治 18년(1661) 청나라 정부는 鄭成功 세력을 고립시키기 위해, 해안으로부터 30리 이내 연해의 주민들을 내륙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해안 일대의 海防시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가옥까지 불태워버렸다. 이른바 遷界令이 시행되었다. 康熙 3년(1664) 천계의 재앙이 동산에까지 이르러, 지역은 순식간에 폐허만 남게 되었다. 시행 1년여 만에 강제 이주를 당한 복건의 연해민 중 8,5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을 정도로 심각

13) 林文輝·葉亦武, 「從東山關帝廟看海峽兩岸關帝信仰文化」, 『中國地方志』, 第4期, 中國地方志指導小組辦公室, 2008, pp.57-58.

14) 대만 관제묘의 대부분은 복건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중 약 2/3는 漳州의 동산관제묘를 祖廟로 하고, 나머지 1/3의 조묘는 泉州의 通淮關岳廟이다. (王承丞, 「台灣地區關公信仰及兩岸關公文化交流概述」, 『團結』, 中國國民黨革命委員會中央委員會宣傳部, 第1期, 2023, p.57.) 台南에 위치한 祀典武廟, 高雄의 文衡殿, 宜蘭의 礁溪協天廟, 台北의 行天宮, 澎湖의 紅毛城武聖廟 등은 모두 동산관제묘에서 分靈하여 건립되었다. (胡迢, 「台灣的關公信仰」, 『台聲』, 中華全國台灣同胞聯誼會, 2007.08., pp.77-78.)

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혔던[15] 천계령은 강희 19년(1680)이 되어서야 해제되었다.

<그림3> 淸 遷界令의 범위[16]



천계 시기 동안 타지에 흩어져 떠돌던 동산의 주민들은 15년이 지나서야 고향으로 겨우 돌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황폐해진 농토와 염전, 다 무너져버린 주택과 기반 시설이었다. 주민들은 천신만고 끝에 원래 터전으로 돌아왔지만, 생산에 불리한 경작 여건으로 인하여 기아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고, 파괴된 성채나 시설의 수축을 위한 비용[납세]과 노동력[요역]까지도 부담해야 했다.

당시 동산 주민들에게 납세와 요역의 의무는 경제적 부담인 동시에 청 왕조에 대한 심리적 불만을 더욱더 팽창시키는 요소로도 작용하였다. 강희 6년에 이미 衛所를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 왕조는 복계 이후 한참 동안 동산민의 호적과 신분 정리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동산 주민들, 특히 천계 이전의 軍戶들은 토지 등기, 재판이나 소송, 과거 응시, 납세와 부역 등 갖가지 행정적 불편과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는데, 특히 강희연간 시행된 '歸宗合戶' 정책은 동산 주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절감하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였다.

15) 원정식, 「전근대 중국 종족사회의 변화와 전란: 16-17세기 복건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사연구』, 제27집, 중국사학회, 2003, pp.214-215.
16)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China_1820_zh-hant.svg [2023.11.01.]

歸宗合戶은 糧戶歸宗이라고도 한다. 초기에 청은 명의 제도를 계승해 里甲制에 기초하여 세역을 관리하였는데, 里長은 稅量의 결정이나 징수를 전담하였기 때문에 그 권한이 막강하였다. 그런데 세간에서 이장의 전횡과 횡포를 호소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였고, 이것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강희 29년(1690) 里甲賦役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閩浙總督 興永朝는 민간에서 錢糧納稅戶를 재편하여 납세할 수 있도록 부역제도의 개혁을 실시하였다. 이 정책으로 자유로운 立戶가 가능해졌고, 子戶들은 同族 里長戶를 중심으로 통합하여[歸宗] 새로운 戶를 설립할 수 있게[合戶] 되었다. 그런데 귀종합호를 성공하면 세역의 부담이 경감되었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납세의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백성들은 同姓의 이장호에게 귀종하기 위하여 縣이나 府를 넘나들거나, 合戶의 목적으로 여러 姓이 연합하여 허구의 同宗關係를 만들기도 하였다.[17] 하지만 동산 군호의 후예들은 당시 黃冊에 이름을 올리지도 못했기에 귀종합호라는 새로운 제도의 편의와 혜택을 누릴 수가 없었다.

강희 40년(1701)에야 동산 주민들은 漳浦知縣 陳汝咸의 건의로 부역황책에 편입될 수 있었다.[18] 하지만 入籍이 된 후에도 동산의 군호는 "有籍無宗"의 처지였기 때문에 "傍人門戶"할 수밖에 없었고 여전히 불이익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런데 동산 주민들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었던 근처 詔安縣의 軍戶가 '關世賢'이라는 戶名으로 귀종합호에 성공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동산의 주민들은 조안현의 사례를 따라, 관우를 공동의 조상으로 삼은 '關永茂'라는 새로운 戶名을 내세우며 귀종합호를 추진하였다.

> "有軍籍而無宗者, 共尊關聖帝君為祖, 謂置名曰關世賢, 納糧輸丁, 大稱其便. 五十年編審, 公議此列, 亦表其戶名曰'關永茂', 眾咸謂可. " (公立關永茂碑記) [19]

동산 군호들의 異姓 귀종합호는 강희 56년(1717)이 되어 드디어 청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 복계가 이루어진 지 21년 만에 黃冊에 등록될 수 있었고, 귀종합호 정책이 처음 시행된 때로부터 21년, 그리고 入籍이 되고도 10년이 더 지난 후에야 동산민들도 세역의 불평등을 다소 해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17) 원정식, 「淸 中期 福建의 徵稅와 宗族」, 『江原史學』, 15·16, 강원사학회, 2000, pp.305-308.

18) "康熙四十年, 漳浦縣主陳公汝咸編甲均畝, 銅山各戶編作六都一圖一甲、二甲. 一甲諸姓附入雲霄李隆戶內; 二甲諸姓附入龔謨烈戶內. "(『南嶼陳氏族譜』, 『丁糧沿革雜記』: 劉永華·鄭榕, 「清初中國東南地區的糧戶歸宗改革——來自閩南的例證」, 『中國經濟研究』, 第4期, 中國社會科學院經濟研究所, 2008, p.86 재인용.

19) 東山關帝廟理事會, 『東山關帝廟志』, 東山風動石管理處, 2007, p.21.

‘關永茂’의 탄생을 통하여 그 당시 동산에서 관우 신앙이 어떠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동산 지역민들의 관우 신앙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엿볼 수 있다. 관영무는 遊·吳·江·蕃·洪·鄭·康·何·陳·朱 등등의 34개 異姓이 결성한 계약식 종족 조직이다. 혈연관계가 아닌 이들이 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합한 것이기 때문에, 關聖帝君 관우가 공동의 祖宗이 된 것은 그들 간 ‘합의’의 결과이다. 각각 다른 성씨를 가진 이들이 모여,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관우의 후예를 자처한 것은 地緣에 근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동산이라는 지역은 상당한 시간 동안 관우를 모셔 왔기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관우는 이미 보편적인 신앙의 대상이었고 그에 대한 신앙 활동은 생활의 일부로 자리를 잡았으며, 관우신의 권능에 대한 경외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당시 관우는 祖宗으로 삼는다고 하였을 때 감히 거부 혹은 반대를 표시하기 어려운 대상이었거나, 수긍 혹은 동의가 어렵지 않은 존재였기 때문에 34개 성씨 연합의 공동 祖宗 추존이 가능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관영무의 祖宗이 된 이후 관우는 그들의 유대 강화를 위한 매개체가 되었고 관영무의 보호신으로 자리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단결과 공동체 결속의 유지에도 기여하였다.

청대 중국인들은 관우가 호국보민, 전투승리, 무병장수, 자손번창, 과거급제, 부귀영화 등등 무엇이든 좌우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서, 무슨 소원이든 간절히 바라면 들어주는 영험한 신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관우를 護國神, 武神, 戰神, 辟邪神, 財神 등등으로서 추앙하였다. 그런데 관우를 祖神으로 받들어 모시는 지역은 오직 한 곳, 바로 동산뿐이다. 동산이 다른 지역의 관우 숭배문화와 구분되는 함의를 지니게 된 것은 이곳의 특유한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다. 따라서 청대에 동산의 관우문화는 진화기에 도달하였다 할 수 있겠다.

3. 동산 관우문화의 특징

동산은 해상 방어 기지로 건설되어 성장하였기 때문에 병영사회와 이민사회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정성공의 反淸 투쟁의 기지로 활용되었기에 遷界와 復界를 겪었고, 상당한 세월 동안 “化外之民” 혹은 “버려진 백성”으로 취급당한 역사적 아픔을 품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동산 고유의 지리 환경과 역사적 경험 등 특유의 지역적 문화 요소는 동산의 관우 신앙에 다른 지역의 그것과 확연히 구분되는 선명한 개성을 부여하였다.

동산의 관우 숭배문화는 그 원형이 되는 중원의 관우 신앙에다 동산의 장소성을

구성하는 지리, 역사 문화 등의 요소가 결합하여 변화되었다. 따라서 동산의 관우문화와 중원의 관우문화는 동일한 속성을 공유하는 동시에 상호 변별되는 요소까지 내포하게 되었다. 아래에서는 동산 관우문화의 대표적 특징을 정리하고, 이러한 특징이 형성된 내력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1) 武神

동산은 송대 이전부터 동남 해안 방어를 위한 군사 거점의 역할을 하였고, 군인은 지역 인구의 중요 구성원이었다. 『東山縣志』에 따르면, 宋 建隆원년(960) 동산 경내에 4개의 군사 역참이 설치되었고 각각 60명의 군인이 배치되었다고 한다. 명대가 되면 銅山千戶所와 水寨가 설치되어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본격적인 지역 성장이 시작되었다. 동산의 관우 숭배문화는 외부에서 유입된 軍戶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분명한 군사적 색채를 내포하고 있고, 그것은 동산의 관우 顯靈 전설의 서사에서도 흔히 묘사되는 부분이다.

> 嘉靖 35년(1556), 왜구의 대규모 침공으로 인하여 동산천호소가 함락당할 위기에 놓이게 되자, 위기를 느낀 백성들은 묘우로 달려가서 관우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곧 바다가 안개에 휩싸이고 크게 파도가 치기 시작하였고, 왜구들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속수무책이 되어 어찌할 바를 몰랐다. 우렁찬 함성소리와 함께 '關'자가 적힌 깃발이 燎高山에서 안개를 뚫고 나오자, 왜구들은 마치 뜨거운 가마솥에 빠진 개미처럼 사방으로 도망치기 바빴다. 그 와중에 붙잡히게 된 왜적들은 혼이 빠져 입에 거품을 문 채, 쉴 새 없이 머리를 조아리며 "관나으리, 살려주십시오……"라고 빌어댔다. 동산 군민들은 관제가 현령하여 전쟁을 도왔음을 알고 銅陵關王廟에 가서 감사의 제사를 올렸다. [20]

왜구들은 날로 세력을 키워나갔는데, 명나라 조정은 그들의 침입과 난동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고, 백성들은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 무자비한 왜구의 약탈 앞에서 부패한 관리와 무능력한 군대로 인하여 현실적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동산의 주민들은 자신들을 보호해 줄 초월적 존재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당시 백성들의 심리적 불안과 기대가 구체화 된 것이 바로 관우 전설이다.

군사요충지라는 명성에 걸맞게, 동산에는 관우가 전쟁에서 사병들과 백성들을 보호하고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데에 도움을 준 내용의 전설이 많이 남아 있다.[21] 이

---

20) 鄭舒翔, 「閩南海洋社會與民間信仰——以福建東山關帝信仰爲例」, 福建師範大學 碩士論文, 2008, p.30.

21) 福建水師提督施琅奉命征台屯兵東山, 其軍士夜宿關廟, 夢見關帝顯靈, 於空中疾呼 "選大纛五十杆,

러한 전설들에는 관우가 가진 다양한 신격 중에서 武神, 軍神, 戰神 등 군대나 전쟁과 관련된 神性을 두드러지게 묘사된다. 즉 동산의 관우 신앙의 특징 중 첫 번째는 무장으로서의 관우를 신분을 강조하고 그의 神勇과 武威를 부각한다는 것이다. 이는 내륙의 관우 신격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동산의 관우 신앙이 중원에서 유입되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2) 海神

동산의 북서쪽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동남쪽은 모래땅이 펼쳐져 있다. 비옥한 땅이 없어 동식물이 자라기에 불리하고 식량과 목재가 부족하였다. 농경이 어려운 환경에서 동산의 주민들은 바다에 기대어 생계를 꾸려야 했다.[22]

동산의 상당수 인구는 어업이나 염업에 종사하였다. 바다로 나가기 전, 이곳 어민들은 먼저 관우상에 분향하였고, 어선에는 龕室을 마련해 놓고 항해 중에도 제를 올리는 일을 잊지 않았다. 바다 위에서는 변덕스러운 날씨나 해적이나 왜구의 습격과 같이 인간의 능력으로 예측하기 어렵고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기 십상이다. 어민들은 관우에게 해상의 위험과 곤란을 제거하고 자신들의 생명과 안전을 돌보아 달라고 기도하였다. 그리고 육지에 남은 식솔들은 관제묘에 가서 관우에게 그 옛날 甘·靡 부인을 무사히 유비에게 모셔다 주었던 것처럼, 바다로 나간 자신들의 가족도 무탈하게 귀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원하였다.[23] 즉 동산의 어민과 그 식솔들은 관우 신앙을 통하여 불안을 달래고 정신적 안정을 구하였다. 그들은 관우가 도적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武神] 뿐만 아니라 풍랑과 해일을 불러오는 바닷속 귀신까지도 굴복시키는 신력[伏魔大帝]까지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농경이 불리한 동산에서 어로와 함께 경제를 지탱하는 또 다른 축은 상업활동—해상(私)무역이었다. 동산의 주민들은 명청시기 海禁이 시행된 상황에서도 생계를 위해 바다로 나갔다. 해상무역은 항해의 위험뿐만 아니라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까지 무릅써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海商들은 초월자의 보호와 도움이 절실하였을 것이다. 동산 출신자를 포함하여 동산에 들른 해상들은 배를 띄우기에 앞서 관제묘에 들러 기도를 올렸고, 바다 위에서도 동산관제묘에서 분령해 온 관우신을 위한 제사를 받들었다. 사업이 성공한 뒤에는 神恩에 보답하기 위하여 다시 동산관제묘에 와서 제

助施將軍破賊". 施琅晉謁聖靈祈求靈簽賜佑, 果然出師告捷, 順利攻克澎湖, 使台灣歸於一統. (東山關帝廟理事會, 『東山關帝廟志』, 東山風動石管理處, 2007, p.49.)

22) 鄭榕, 「明清以降銅山商貿發展與武廟祭祀」, 『漳州師範學院學報』, 第二期, 2009, p.66.

23) 劉新慧, 「論福建沿海漁民的海神信仰」, 『黑龍江史志』, 總第330期, 中共黑龍江省委史志研究室, 2014, pp.123-124.

를 올리거나 묘우를 중수하는데 자금을 보태기도 하였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현지에 分廟를 직접 건립하기도 하였다.[24]

바다를 경제 활동의 터전으로 삼았던 동산의 어민과 해상들은 관우신의 忠實한 신봉자였다. 이들은 관우신이 바다의 변덕을 잠재우고 자신의 생명과 선박의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힘, 즉 海神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중원 내륙지역에도 관우가 폭풍우나 홍수에서 航行이나 선박을 보호했다거나 水厄을 제거하였다는 '水神 관우'의 전설이 전해지지만, 배가 조난을 당한 장소가 강으로 한정되어 있다. 즉 내륙에서 수신 관우는 강이나 하천 및 우물을 관장하고 雨神 혹은 선박보호신의 신격을 가지고 있었지만[25], 바다를 다스릴 수 있는 신성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그런데 연해에서는 지역 고유의 해양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관우가 해상 안전을 지켜주었다는 등의 '海神 관우'의 전설이 보인다. 동산을 비롯한 연해 지역의 관우문화에 해신 숭배의 특징이 함유되어 있는 것은 그 지역 고유의 해양문화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연해의 해양문화는 관우문화의 다원화에 일조하였다.

3) 祖神

<그림4> 동산의 신혼집 거실에 걸려있는 關帝神像[26]

동산의 주민들은 관우를 "關祖"라고 부르며 그들의 선조로 모신다. 가가호호 제단을 만들어서 매일 아침 집안의 관우 신상에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리면서 존경의 마음

24) 대표적인 예가 高雄文衡殿이다. 萬曆연간, 泉州의 商船이 동산항에 정박하였는데, 선주 陳씨가 동산관제묘에서 분령해 온 관제를 자신의 배에서 모신 뒤로 사업이 날로 번창하였다. 이후 진씨는 관제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대만 高雄에 관제묘를 세웠고, 동산관제묘에서 모셔온 神像을 그곳에 모셨다. (林文輝·葉亦武, 「從東山關帝廟看海峽兩岸關帝信仰文化」, 『中國地方志』, 第4期, 中國地方志指導小組辦公室, 2008, p.58.)

25) 관우가 渡江 중 조난을 당한 선박을 구하거나 폭풍우를 멈춘 일과 관련한 전설은 "從海神信仰視角看關公"(陳政禹, 『蘭台世界』, 遼寧報刊傳媒集團, 2005.02., pp.106-107)을 참고할 것.

26) 『關帝廟』2020年第2期(總第32期), http://guandimiao.com.cn [2023.11.07.]

을 표한다. 또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는 관제묘로 향하고, 새집으로 이사를 하거나 가족이 분가를 할 때에 관우의 神像과 對聯을 선물로 주는 독특한 풍습을 유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관제묘에 가서 점괘를 뽑아본다든지 기도를 올린다든지 하는 관우와 관련된 풍습이 동산에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27)

상술한 바 있듯이, 복계 이후 "奸民", "賊逆" 등의 취급을 받으며 入籍이 불허되었던 동산의 주민들은 강희 50년에 관우를 공동의 조상으로 정한 '관영무'로 다시 귀종합호를 신청하였고 마침내 청나라 정부로부터 허락을 얻어내게 되었다. 이 일은 公立關永茂碑記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동산에는 이와 큰 틀은 유사하지만, 세부 내용에 차이가 있는 관련 전설이 남아 있다.

> 관제는 동산 주민들이 入籍하지 못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고, 말을 몰아 漳浦知縣 陳汝咸에게 달려가서 동산 주민들을 변호하였다. 이후 묘우로 돌아온 관제는 大姓 족장들의 꿈에 나타나서, 묘우에서 회의를 열어 입적 신청을 상의하라고 촉구하였다. 관제묘에 모인 각 족장들은 관제가 현몽하신 까닭을 깨닫고, 그가 베풀어 주신 은덕에 감격하여 경배를 올리며 자손이 되겠다고 맹세하였다. 곧 동산의 장로들은 섬 내 여러 姓을 하나로 모아 '關永茂'라는 戶名으로 다시 入籍 신청을 하였고, 드디어 관부의 심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이로부터 "有籍之人"의 자격을 얻은 동산의 주민들은 조세와 요역을 경감받을 수 있게 되었다.28)

史料와 전설은 첫째 귀종합호의 일을 상의한 장소가 관제묘라는 것이 서로 동일하고, 둘째 관영무의 祖宗이 관우라는 점이 일치한다. 하지만 관영무 설립의 과정에서 관우의 역할과 공헌의 내용은 다소 상이하다. 전설 속의 관우는 몸소 지현을 찾아가 설득하고 동산의 장로들을 결집시켜 구체적 행동를 촉구하는 등 관영무 설립의 설계자이자 집행자의 역할을 하였다. 관우의 노력과 기여가 없었다면 황책 등재나 귀종합호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전설의 서사는 관우의 역할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사료와 비교하여 민간전설은 관우의 공헌을 구체화함으로써, 관우의 동산 주민들에 대한 측은지심과 애민정신이 더욱 부각되었다. 이 전설은 관영무가 설립된 이후에 완성되었을 것인데, 서사에는 祖宗인 관우가 따뜻한 마음으로 자신들을 굽어살펴 주십사 하는 동산 주민들의 염원이 녹아있다.

동산의 관우문화에 祖神 숭배의 특징이 형성되고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버려진 백성"의 취급을 받았던 동산 지역 고유의 역사적 경험과 더불어, 민남의 宗

---

27) 劉小龍, "舉世罕見的東山'關祖'信俗", http://tongshanguchengcom [2023.11.09.]
28) 劉小龍, 『海峽聖靈』, 海風出版社, 2003, pp.30-31.

族문화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복건지역 한족의 뿌리는 북방에서 남하한 이들로 이곳 한인의 역사는 이민의 역사로 시작되었다. 갖가지 이유로 원적을 떠나 복건에 정착하게 된 중원의 이민자들은 한정된 자원을 두고 토착민 혹은 신이주자들과 경쟁해야 했다. 종족조직은 생존 투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거나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 유용하였기에, 복건은 종족 결집성이 강한 사회 문화적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29]

복건의 종족들은 조직의 유지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종족 내 단결과 응집력 강화에 다방면으로 노력했는데, 족보의 수찬, 祠堂 건립, 공동 종교활동 등을 대표적 예로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배경이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30], 관우는 관영무의 조종이 되었고 동산에서 조상신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관우를 '祖神'으로 숭배하는 동산 관우문화의 특징은 민남 고유의 강한 종족문화와 융합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4. 나가며

예로부터 동산에서 관우는 중요한 숭배 대상 중 하나였다. 상당한 역사를 자랑하는 이곳의 관우 숭배문화는 지금까지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으며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자랑한다. 본고는 동산이 관우 생전 그 어떠한 접점도 없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관우 신앙이 착근될 수 있었던 까닭을 규명하기 위하여, 관우 신앙이 동산에 유입된 시기와 과정 등 그 역사 및 동산 관우문화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당대 초, 관우 숭배 문화가 중원 혹은 내지 출신의 군인들에 의해서 장주로 유입되었다. 역사인물 관우는 무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충의를 상징하는 인물이었다. 그가 대변하는 忠과 義의 도덕 덕목은 군영사회와 이민사회의 질서와 안정에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원의 관우문화는 장주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왜구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明왕조는 해안 방어에 상당한 신경을 기울였는데, 동남 해양 요충지에 군사시설을 설치하였다. 동산에도 수채와 천호소가 신설되었고 병력이 파견되면서 군호 인구가 대거 유입되었다. 홍무 20년에 동산성의 건설되었고 이와 함께 "관병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왕묘가 건립되었다.

---

29) 林楓·範正義,『閩南文化述論』,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8, pp.170-184.

30) 명청대 복건에서는 "족원들이 믿는 신령"뿐 아니라 "성씨가 일치하는 신령" 혹은 "자신들과 계보가 같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신격을 인정받은 신령을 조상으로 삼아 종족 결집에 활용"하기도 하였다. (원정식,「明·淸代 福建 宗族의 神靈崇拜: 종족의 생존전략과 관련하여」,『명청사연구』, 제49집, 명청사학회, 2018, pp.160-162.)

초기에는 관왕묘를 찾는 이들이 대부분 군호였지만, 관우 신앙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면서 참배객의 수가 날로 증가하였고 그들의 신분 역시 다양화되었다. 군인뿐만 아니라 어민, 상인, 관료 등 대다수 동산의 거주민들은 불확실하고 불안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관우에게 달려갔다. 倭亂이나 원정과 같은 전투 상황에 닥쳤을 때는 武威를 발휘해주기를, 어업이나 해상무역을 하기 위해 바다를 건널 때는 바닷속 귀신을 물리쳐주기를 비는 등, 관우 신앙을 통하여 정신적 안정을 구하려 하였다. 또 병영이나 민간 자위대를 꾸리거나 종족결합 등 공동체를 구성할 때에는 관우 신앙을 구심점으로 삼아 구성원 간의 결속과 단결을 도모하였다.

동산의 관우 숭배문화는 중원에서 유입된 것이기는 하지만, 중원과 확연히 구분되는 바가 있다. 동남 연해라는 동산의 위치와 바다에 둘러싸인 '섬'이라는 지리적 특징은 인구 구성원들의 신분과 직업의 차이를 가져왔다. 또한 청대 遷界와 復界를 거치면서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역사를 겪어야 했다. 동산의 장소성을 구성하는 지리, 역사 문화 등의 요소는 타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동산만의 고유한 특징을 만들어 내었다.

동산의 관우문화에는 중원문화의 흔적이 남아 있지만, 이민자의 문화와 함께 지역 고유의 민남문화의 특징 역시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바다가 사면을 둘러싸고 있는 섬 지역 특유의 해양문화적 특징도 찾아볼 수 있다. 동산에서 모시는 관우는 중원에서처럼 전쟁의 신이기도 하지만, 이와 동시에 바다를 관장하는 해양신이며 자손을 굽어살피는 조상신이기도 하다. 이처럼 동산의 관우 신격이 다원화되어 변별성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동산의 지리, 역사, 그리고 고유의 문화적 특징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蔡東洲·文延海,『關羽崇拜研究』, 巴蜀書社, 2001.
東山關帝廟理事會,『東山關帝廟志』, 東山風動石管理處, 2007.
林　楓·範正義,『閩南文化述論』,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8.
林國平,『閩台民間信仰源流』, 人民出版社, 2013.
劉小龍,『海峽聖靈』, 海風出版社, 2003.

<논문>
원정식,「淸 中期 福建의 徵稅와 宗族」,『江原史學』15·16, 강원사학회, 2000.

_____,「전근대 중국 종족사회의 변화와 전란 : 16-17세기 복건지역을 중심으로」,『중국사연구』, 제27집, 중국사학회, 2003.
_____,「明·淸代 福建 宗族의 神靈崇拜 : 종족의 생존전략과 관련하여」,『명청사연구』, 제49집, 명청사학회, 2018.
윤정분,「明代 軍戶制와 衛所制에 대하여」,『東方學志』, 43,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4.
林國平,「明清東山社會的變遷與關帝職能的演變」,『閩台文化研究』, 第40期, 2014(04).
林文輝·葉亦武,「從東山關帝廟看海峽兩岸關帝信仰文化」,『中國地方志』, 第4期, 中國地方志指導小組辦公室, 2008.
劉新慧,「論福建沿海漁民的海神信仰」,『黑龍江史志』, 總第330期, 中共黑龍江省委史志研究室, 2014.
劉永華·鄭榕,「清初中國東南地區的糧戶歸宗改革-來自閩南的例證」,『中國經濟研究』, 第4期, 中國社會科學院經濟研究所, 2008.
王承丞,「台灣地區關公信仰及兩岸關公文化交流概述」,『團結』, 第1期, 中國國民黨革命委員會中央委員會宣傳部, 2023.
吳鴻麗,「關帝信仰的閩南社會元素」,『中國社會經濟史研究』, 第2期, 廈門大學歷史研究所, 2014.
楊培娜,「誰的堡壘——明代閩粵沿海衛所的居民化路徑比較」,『國家航海』, 第22輯, 上海古籍出版社, 2019.
張曉松,「試論漳州的關帝信仰」,『漳州師範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71期, 漳州師範學院, 2009(01).
鄭舒翔,「閩南海洋社會與民間信仰-以福建東山關帝信仰爲例」, 福建師範大學碩士論文, 2008.
鄭　榕,「明清以降銅山商貿發展與武廟祭祀」,『漳州師範學院學報』, 總第72期, 漳州師範學院, 2009(02).
_____,「戶籍分野與身份認同的變遷——明清以來銅山軍戶社區文化結構過程的考察」,『中國社會經濟史研究』, 第二期, 廈門大學歷史研究所, 2010.
鄭振滿,「明清福建的裏甲戶籍與家族組織」,『中國社會經濟史研究』, 第2期, 廈門大學歷史研究所, 1989.
鄭　鏞,「關帝崇拜與漳州民風」,『漳州師院學報』, 第3期, 漳州師範學院, 1998.

<기타자료>
陳政禹, “從海神信仰視角看關公”,『蘭台世界』, 遼寧報刊傳媒集團, 2005.02.
胡　迢, “台灣的關公信仰”,『台聲』, 中華全國台灣同胞聯誼會, 2007.08..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China_1820_zh-hant.svg [2023.11.01.]
http://guandimiao.com.cn [2023.11.07.]
http://tongshangucheng.com [2023.11.09.]
https://zhuanlan.zhihu.com/p/48049967 [2023.11.06.]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关羽文化, 东山, 闽南, 东南沿海文化, 东山关帝庙
	영문	Guan Yu culture, DongShan, Minnan, Worship of Guan Gong, Southeast coastal culture, Dongshan Guandi temple

A Study on Guan Yu Culture in the Southeast Coastal Areas of China : Focusing on Fujian Dongshan

Yi Min-Kyoung

Dongshan is a locale where Central Plains culture, Minnan culture, and maritime culture converge, giving rise to a distinctive and diverse Guan Yu culture. In his lifetime, Guan Yu had no association with Dongshan or the Minnan region, and no maritime-related stories are attributed to him. Nevertheless, in Dongshan, situated on the southeast coast, a Guan Yu worship culture akin to that in other regions prevails. Despite potential differences in scale, every household features an altar dedicated to a Guan Yu statue. During significant occasions such as the Spring Festival, Guan Yu's birthday, or his day of ascension, Dongshan residents frequent temples to conduct memorial services, seeking peace and prosperity for their families.

Guan Yu has historically been a revered figure for Dongshan residents, with a well-established cultural history. Despite the absence of personal connections between Guan Yu and Dongshan during his lifetime, the establishment of the Guan Yu faith in this region prompts questions about its origin. Additionally, how has the Dongshan Guan Yu worship culture persevered to the present day?

This study seeks to scrutinize the history and distinctive features of the Dongshan Guan Yu culture and analyze its implications. By doing so, it aims to serve as a foundational exploration into the diverse facets of Guan Yu culture and contribute to the comprehension of the cultural landscape of the southeastern coastal region of China.

저 자	이민경 / 李旼憬 / Yi Min-Kyoung					
논문작성일	투 고 일	2023.11.10.	심 사 일	2023.12.09.	게재확정일	2023.12.19.